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벗나?...내주 논의?

중국발 유입 미미...특별한 변이도 없어 국내 유행 안정화...마스크 지표 기달성

그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단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이 숫자(중환자 수)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대선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정치권에서 호응하는 등 논의에 불이 붙었을 때에도 정 단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당시 정 단장은 “지금 당장 실내마스크를 해제를 했을 때 역

울한 죽음과 역울한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 계층들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 브리핑에서도 정 단장은 “만일 이 추세로 위중증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마스크 조정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입장 변화의 배경에는 우선 우려했던 중국발 유행이 우리나라에 주는 여파가 생각보다 미미한 점이 꼽힌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검역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확진자는 365명이다.

검사자 대비 양성률은 20%다. 단 이 양성률은 검역 강화 초기 20%를 상회했으나 이후 감소해 8일에는 3.9%까지 줄었다.

유행 증가로 인한 새로운 변이 출현도 우려 사항 중 하나였으나 정 단장에 따르면 중국 내 변이가 대부분 BA.5 또는 BA.5 계통인 BF.7 변이다. 이는 올 여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변이로, 국내에서는 자연 감염이나 백신 등을 통한 면역이 확보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국내 유행은 점점에서 내려온 듯한 모습을 띄고 있다.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4주차(12월18~24일) 6만 7314명에서 12월 5주차(12월25~31일) 6만5530명, 올해 1월 1주차(1월1~7일) 5만9239명으로 2주 연속 감소했다.

중환자 수는 올해 1일부터 나올 연속 600명대를 넘어섰다가 그 이후 감소해 전년에는 532명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중환자실 가동률은 42.2%가

최고였고 현재는 30%대로 유지되는 등 안정된 상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하고 이 중 2가지를 달성하면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환자 발생 안정화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2가지를 충족한 상태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역시 조만간 달성이 유력해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하면 전 지표가 충족했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 상황은 1~2개월 정도 더 유행이 진행될 것 같지만 국내 상황은 계속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미 발표한 로드맵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담양경찰 대전파출소, 설 명절 선제적 방법활동 강화

담양경찰서 대전파출소는 설명절을 앞두고 강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선제적 방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진도소방, 신축공사장 등 2개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진도소방서는 진도수협 로컬푸드 신축공사장 등 2개소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위험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양소방, 하트세이버 유공 도지사 표창 수여

광양소방서 대응구조과장은 지난 9일 하트세이버 유공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품질기술부, 한희천(남,54) 과장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완도소방, 지역 인프라 활용 주택안전 홍보활동 개시

완도소방서는 9일 하나로마트 완도농협본점 정문 출입구에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주택안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이재명 검찰 출석에 “표적수사”vs“구속하라” 시민단체 장외전 ‘후끈’

경찰과 실랑이, 도로 한가운데서 마찰 빚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10일 오전 8시께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장외전이 펼쳐졌다.

양측이 이른 아침부터 성남지청 입구와 건너편에 차량용스피커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를 벌이면서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 대표 출석까지 3시간가량 남은 오전 7시께 집회 단체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또 서로의 스피커 소리가 겹치면서 도로 한 가운데서 마찰이 빚어지

기도 했다. 경찰이 나서 사람들을 말리는 동안 양방향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성남지청 입구와 남한산성역 3~4번 출구에 자리 잡은 이 대표 지지단체 민주시민촛불연대, 이재명 지지자연대 등 300여 명이 ‘표적수사’, ‘조작검찰’ 등이 써 있는 대형 깃발을 들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지키자”, “표적수사 중단하라”, “정치검사 해체하라” 등을 외쳤다.

민주시민촛불연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국민이자 야당을 이끄는 대표인 이재명을 응원하기 위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쭉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복 10차로를 마주한 건너편에서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신자유연대 등 200여 명이 모여 투쟁가를 틀어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차로에 “이재명을 체포하라”, “나쁜 사람 검찰출석” 등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세를 걸었다.

애국순찰팀 관계자는 “누구를 지지하던 그것은 상관 없지만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받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쭉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을 지나가는 출근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인도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이크를 통해 고성과 욕설이 이어지자 귀를 막고 지나가는 시민도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대학생 김모(21)씨는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데 근처 주민이나 상인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경찰은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명을 순차적으로 배치해 양측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차 뇌물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2018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림, 알파돗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최이슬기자



얼음이 녹는 포근한 날씨

서울 낮 최고기온이 7도까지 오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얼음이 녹고 있다.

한밤 중 순천 주택서 불...3000만원 재산 피해

10일 오전 0시 2분께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1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주인 A(83·여)씨가 대피

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53㎡)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303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외벽에 설

치된 아궁이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사랑 고백’ 거절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살인미수로 구속영장

구애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구애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에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숙박 업소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구애에 실패하면 살해할 생각으로 B씨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구애하며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애를 거절하는 B씨의 목을 조른 뒤 기절하자 지인에게 연락, 경찰에 신고를 부탁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처음 만난 이후로 수차례 구애를 반복하며 괴롭힌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열린다.

임형택기자



광주 동부소방, 화재취약시기 화재예방 주의 당부

광주 동부소방서는 연말연시 및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화재예방 주의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온택트(Ontace) 기업간담회 개최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연말을 맞아 제대군인 취업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취업유관기관과 기업을 초청하여 ‘온택트(Ontact)’방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이슬기자